



제5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개최

우리 협회(회장 윤천영)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마사회, 산림조합중앙회, 건국대학교, 상허문화재단, 성천문화재단과 농민신문, 축산신문, 한국농어민신문, 농업인신문, 농수축산신문 등이 후원한 제5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가 지난 11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럭키 빌 6층 컨벤션홀에서 농업인, 도시민, 농업계 인사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세계화 시대의 우리 농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선도 농업인들의 발상 전환을 통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350만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후손들에게는 밝은 미래를 열어 주는 계기의 기회를 삼고자 개최하였다.

식전행사, 1부 기념식, 초청특강, 2부 원로회원 사은행사, 선도농가 한마음 마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식전행사로는 대회 역사 영상물 방영과 길놀이 행사, 내빈 소개가 있었다.

내빈으로 국회와 정부, 농업관련 기관, 언론, 농업관련단체 등에서 많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국회에서는 강기갑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정부와 농업관련기관, 언론에서는 농식품부 박현출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 민승규 청장, 한국마사회 장태평 회장, 한국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 농수산물유통공사 김재수 사장, 농협중앙회 신충식 전무, 농민신문사 박재근 사장, 한국농어민신문 윤주이 대표, 상허문화재단 조성일 상임이사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농업관련단체에서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준봉 회장, 한국여성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장정옥 회장, 한국 4-H본부 김준기 회장,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부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52회 대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한 정장섭 고문과 강춘성, 이동화, 박용국, 강원호, 김정호, 진재량, 송기덕 원로회원이 참석하여 대회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

내빈소개에 이어 제5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장인 윤천영 회장의 대회선언으로 제52회 대회가 막이 올랐다. 서울시연합회 이운영 부연합회장의 사회로 시작한 1부 기념식에는 강원도연합회 박성현 사무처장의 “우리의 목표(강령) 제창”과 최준혁 부회장의 “대회 약사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한 농업인과 도시민, 공직자들을 발굴·선정하여 “제52회 농업기술상”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한국농어촌공사장, 한국마사회장, 농협중앙회장” 표창장 및 상장과 “우리협회 회장 감사패 및 표창장” 등 총 61점을 시상 하였다.

올해 농업기술상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전부 모두의 공적이 크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표창해 줄 것을 건의해 옴에 따라 처음으로 수상자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였다.

영광의 농업기술상 본상은 전남 영암에서 20여년 전 임대농으로 출발 개척자적 열정으로 “현대농업은 무한경쟁의 기술시대”라는 모토 아래 45,000평의 농장에서 시설국화 5,000평, 채소원에 25,000평, 벼 15,000평을 재배하면서 일본에 연간 국화 400만송이 이상을 수출하여 4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대표적인 선도농가인 박영준·정미순 부부가 차지하였다.

그리고 농업기술상 특별상은 전북 김제에서 19,000평의 논을 이용해 유기농 12,000평, 무농약 7,000평의 농사를 지어면서 유기농 쌀과 참쌀, 닭리작 찰보리를 생산하여 연간 1억 5천여만원의 고소

득을 올리는 대표적인 선도농가인 안광순·박기수 부부가 차지하였다.

농림수산물부장관 표창에는 농업·농촌발전과 우리협회 발전에 기여한 정운순 부회장(경기 안성) 외 19명이 수상하였으며, 농촌진흥청장 상에는 대전·충남연합회 이기일 회원(논산) 외 4명, 한국농어촌공사장 표창에는 충남 서산지회 이유찬 사무국장 외 4명, 한국마사회장 표창에는 부산·경남연합회 오인환 회원(거창) 외 4명, 농협중앙회장 표창에는 본회 유용감사(충북 청주) 외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작년 제51회 대회 개최에 공헌한 경기도의 회 천동현 농림수산물위원장 및 경기도 농업정책과 정지영 사무관과 지역 농업인 권익 및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한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김배중 소장, 영천시농업기술센터 전태곤 농촌지도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 협회장 표창으로는 우리 협회 발전에 기여한 서울시연합회 노순달 회원 외 14명이 수상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식순에 따라 대회사, 격려사, 축사 등으로 진행되어야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국회, 지방출장 등으로 인해 농식품부 서규용 장관의 격려사와 한국마사회 장태평 회장의 축사는 대회사에 앞서 시상식과 같이 진행되었다.

바쁜 일정으로 참석 못한 서규용 장관을 대신하여 박현출 기획관리실장이 대독한 격려사에서는 제52회 대회의 축하와 함께 70년대 녹색혁명 등 농업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농촌을 지키는데 헌신해온 선도농가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그리고 우리 농업의 미래는 “인력양성”이므로 우리 농업의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위해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육성으로 젊고 유능한 인력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FTA 국내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R&D에 대한 투자확대, 식품·종자·생명산업 육성과 도시민과 농어촌주민이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을 적극 펼쳐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을 건설하

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농정의 책임 있는 동반자 역할과 우리 농식품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마사회 장태평 회장은 축사에서 대회 축하와 함께 한국마사회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강조하였다.

시상식 이후에 계속된 기념식에서 윤천영 회장의 대회사와 강기갑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 등의 축사가 있었다.

윤천영 회장은 대회사에서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3대 혁명의 기치 아래 창의성과 개척자의 열정으로 녹색·백색혁명을 일으켜 오늘의 산업화를 일궈, 세계가 놀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만든 주역인 회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농업은 우리 국민 모두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소중한 산업이므로 이 땅의 농업을 지키는 길에 국민들이 나서는 국민농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우리 선도농가 회원일동은 50년 전 개척자의 창립정신으로 돌아가 “희망찬 미래, 농업·농촌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농업시대를 열어 가는데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강기갑 의원은 축사에서 대회 축하와 함께 선도농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저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우리 나라 농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은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농업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공사도 농정 수행의 최일선 조직으로서 농어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가 있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위원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 김재수 사장,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은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하였다.

최인기 위원장은 농정 패러다임이 경쟁과 효율이

라는 산업중심의 일변도에서 농업에 대해서 만큼은 보호·육성·지속 가능이라는 명제가 우선시 되는 농정으로 인식전환이 되어야 하고 “농업상실의 시대” “농업위기의 시대”에 처한 현실을 타개하여 농업·농촌이 활력을 되찾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 내도록 실천해 나가자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여야가 합의한 FTA 피해 보전대책은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재수 사장은 “공생발전”을 강조하면서 공사에서 농수산물 수급안정과 유통구조개선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직거래 확대 등 산지·소비지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농수산물 수출이 고부가가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과 유망상품 개발 지원,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원병 회장은 대회의 축하와 그동안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상자를 축하하였다. 그리고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 뛰어난 농업기술과 경험을 가진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인 선도농가들이 후배 농업인을 이끌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농협중앙회도 사업구조개편으로 농산물을 제 값 받고 팔아 주는 판매 농협을 구현하는 동시에 “食사랑 農사랑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 시켜 국민의 건강과 농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민승규 농촌진흥청장의 축사를 겸한 특강에서는 대회의 축하와 함께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 주역인 선도농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가족농, 소농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작지만 강한 “強小農” 육성추진 등의 내용으로 특강을 하였다.

그리고 선도농가의 건의문을 충북연합회 신경철 사무처장, 선도농가 결의문을 제주도연합회 정선태 사무처장이 낭독하고 참석자들의 박수로써 채택하였다.

1부 마지막 순서로 참석한 내빈 등이 제52주년 기념 떡 자르기를 한 후 기념식을 모두 마치고 점심 식

사와 함께 연예 행사를 시작하였다. 점심식사 후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실시된 2부 행사는 원로회원에게 사은 행사, 선도농가 한마음 마당, 행운권 추첨이 있었다. 원로회원 사은행사는 지회장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통일회원 중에서 각 시·도 연합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한 49명의 원로회원에게 감사장과 함께 조그마한 선물을 증정하면서 전 회원의 이름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마음 마당에서는 외부에서 초청한 무용단, 민요가수들의 신명나는 놀이마당과 장기자랑이 펼쳐졌다. 장기자랑 순서에서는 각 지역 대표 등이 나와 노래솜씨 등을 뽐내며 참가자들과 함께 여흥을 즐겼다. 행운권 추첨에서는 대상인 김치냉장고를 비롯하여 회원들이 생산하여 기증한 각종 우수한 농산품과 전자제품, 분무기 등 100여점의 행운상품을 당첨자들에게 골고루 전달하였다.

그리고 우리협회 제주도연합회 임혁재 회장은 매년 대회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감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에도 품질이 우수한 제주 감귤 80상자를 지원해 주었으며, 한국홍삼제조공사 심호웅 회장이 떡 자르기용 홍삼 시루떡 등을 지원하여 행사를 빛나게 하였다.

또한 국회의원, 행정, 농업관련 단체, 농업관련 기관 등 많은 곳에서 화환과 축전을 보내 축하를 해주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 농업관련기관, 단체, 언론, 업체 등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전국방방곡곡에서 차를 대절하거나 승용차,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참석하신 회원들의 열의와 우리 농업·농촌을 이해하고도·농교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시연합회 회원 등 도시민들의 열의, 임원을 비롯한 각 지역의 연합회장 및 사무처장, 지회장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이런 모든 것이 합쳐진 결과가 이번 제52회 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 한 큰 요인이라고 평가한다. ㉞



▲ 제52회 대회 길놀이



▲ 농업기술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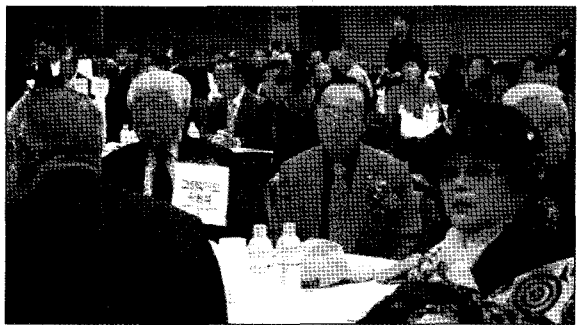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 표창



▲ 강기갑 국회의원의 축사



▲ 농촌진흥청장 민승규 박사의 특강



▲ 제52회 대회에 참석하신 고문 및 지도위원



▲ 제52회 대회기념 떡 자르기



▲ 원로회원님께 감사장 전달



제5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대회사

존경하는 회우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국정업무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관을 대신하여 박현출 기획조정실장님, 국회 강기갑 의원님, 항상 대회 장소 제공과 후원을 해주신 한국마사회 장태평 회장님, 한국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님, 농수산물유통공사 김재수 사장님(이광우 부사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최원병 회장님(신충식 전무이사), "글로벌시대에 우리 농업의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해 특강을 해주실 민승규 농촌진흥청장님,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김준봉 회장님,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장정옥 회장님, 농업인단체장님, 농민신문사 박재근 사장님, 한국농어민신문 윤주이 사장님 등 전문언론사 대표님들께도 10만여 선도농가의 이름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52년전 이 대회를 준비 주관하시고 매년 참석해 주신 정장섭 고문님을 비롯한 강춘성, 이동화, 김정호, 강원호, 박용국, 송기덕 원로회원님, 특히 제2회 대구대회 때 사회를 봐주신 강석규 원로회원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으로 전국 각지에서 이른 새벽부터 출발, 자리를 같이하신 선도농가 회원동지님들께도 환영과 뜨거운 동지애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도농가들이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깃발을 내걸고 창조적 창의성과 개척자의 열정적 노력으로 오늘의 녹색혁명, 백색혁명을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 오늘날 세계가 놀라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세계 제10위권의 경제대국을 만들어 내신 주역들이십니다.

선도농가 동지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한해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계절임에도 불

구하고 우리 농업인들의 걱정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한·미 FTA협상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가의 성장전략 일환으로 여러 나라와의 FTA를 추진하고,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에 대한 배려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은 FTA체결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으로 보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것만이 아니고 한 나라의 생존과 보존을 위한 생명 산업입니다.

피해가 많은 농업부문에 대하여 정부는 FTA피해 보전을 제도화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으로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농업인의 주름살이 퍼지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 경제학자는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을 지키고 키우는 일에 전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농업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의 붕괴는 생태계 파괴, 식량파동, 먹을거리 오염으로 이어지고, 아토피, 비염, 천식 등 각종 환경성 질환들이 늘어나고, 국민들은 환경오염으로 큰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농업은 생산자나 소비자, 정부도 단순한 먹을거리 개념에서 벗어나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농·공·상 융합 복합기술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국가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농업기술상 본상을 수상하시는 전남 영암의 박명준 회원님은 20년 전 임대농업으로 출발하여 주변농가들을 모아 영농 법인을 설립하고 기술혁신을 통하여 연간 3기작재배와 단위면적당 기존의 50% 이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본,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해외까지 생산수출영역을 확대함으로써 21세기 한국농업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하고 이같이 농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더불어 농촌을 지탱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모든 국민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만이 서로 윈윈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선진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농업은 국민모두의 생명산업이요 5천만

국민의 미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에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선도농가회원동지 여러분!

우리 10만여 선도농가는 52년 전 개척자의 창조적 창립정신을 되새기며 발상전환을 하고 “희망찬 미래 농업·농촌을” 만들어 내어 글로벌 농업시대를 열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각종 상을 받으시는 회우동지여러분, 그리고 수십년간 본회 발전과 한국 농업, 농촌을 위해 전위대 역할을 다하시어 오늘 원로회원으로 추대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어린 축하와 경의를 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내외귀빈과 선도농가 여러분의 앞날에 늘 건승하심과 가정에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윤 천 영



제5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즈음한 선도농가의 건의문

전국의 10만 선도농가들로 구성된 우리협회는 FTA 등의 개방정책과 높은 생산비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 등 대내외적인 영농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의 붕괴위험을 막아 식량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제5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농정에 반영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 농업·농촌·농민문제는 상대적으로 일반적 인 타 산업과 비교하여 열악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농업을 국가산업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특화하고 농업·농촌 그리고 농민이 인정받는 당당한 산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 다자간, 양자간의 국가협약으로 인한 개방정책으로 인한 수익부분을 피해를 입는 농업부분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농업피해를 정확히 예측하여 선대책 후비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협동조합으로 되돌려야 하며, 조합원은 농산물생산에 전념을 하고 조합은 제값에 판매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구조개혁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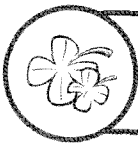
넷째 : 국민들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를 책임져 온, 고령의 농업인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후계자들이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교육,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강력히 요구한다.

다섯째 : 농업을 국민식량주권 보존과 자존산업으로, 농촌을 국민활력 재충전의 공간으로 도

시민에게 제공하고, 농민을 전통문화의 수호자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국민농업운동을 전개할 것을 국민모두에게 요구한다.

2011년 11월 23일

제5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선도농가 일동



제5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즈음한 선도농가의 결의문

지금 우리농업은 자국의 식량보호주의, 식량을 이용한 이익에 눈이 먼 다국적기업, 글로벌화로 인한 국가 간 FTA비준 등으로 많은 피해와 더불어 우리의 기간산업인 농산업을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타산업 분야에서는 무역자유화가 성장의 기회임을 내세워 농업부문의 위기를 단순한 농업·농촌·농민의 피해로만 해석하여 일시적인 보상과 달래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대열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선진국이 농업을 국가의 존립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농업우선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반세기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한국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농업생산의 근대화를 주도한 전국농업기술자협회 10만여 회원 일동은 제5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 한국 농업·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 현재의 농업·농촌·농민 문제는 단순한 농업인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

식량주권과 국가자존의 문제임을 인식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보전하고 발전시키는데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둘째 : 우리 선도농가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이름으로 지역농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적극 활동할 것을 결의한다.

셋째 :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을거리의 생산을 위해 선도농가로서 관행농법을 지양하고 유기농 및 친환경농법을 선도하며 선진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결의한다.

넷째 : 우수한 농업후계자 확보와 양성을 위해 이론 및 실습훈련을 충실히 하여 현장교육 등 후계농업인 양성에 주력하여 세계화 속의 1등 농업을 이룩할 것을 결의한다.

다섯째 : 우리는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단순한 생산자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과 국가의 문제로 인식하여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를 위해 전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농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11년 11월 23일

제5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선도농가 일동



2011년도 제2기 말(馬)산업전문가양성과정 교육 실시

우리협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업인재개발원의 지원으로 “말(馬)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지난 6월 14일(화)부터 7월 7일(금)까지 실시한 2011년도 제1기 교육에 이어 제2기 교육을 지난 10월 10일(월)부터 11월 2일(수)까지 4주간 10박 14일의 일정으로 농업기술진흥관, 충무승마클럽 및 현장에서 농촌형 체험 승마장 운영자 및 개설 희망자, 말산업종사자 및 말에 관심 있는 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3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이번 교육은 “마필산업 정책에서부터, 말 관리, 승마기술, 농촌형 승마장 개설 절차까지 등의

전반적인 교육을 통하여 말을 활용한 각종 도농교류(그린투어리즘)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기여”하고자 이론과 실습·견학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말 산업 육성대책방향, 말을 활용한 농촌활성화방안, 말의 품종, 발굽관리, 마구장비 사용요령, 질병관리, 사양관리, 번식 및 혈통관리, 재활승마 등의 이론교육과 순치, 조마삭훈련, 승마훈련 등의 실습교육, 마사회 및 농촌형·도시형 승마장, 말 사육장, 꽃마차운영장 견학 등으로 이루어 졌다. ☺





2011년도 제2기 고품질조경수재배과정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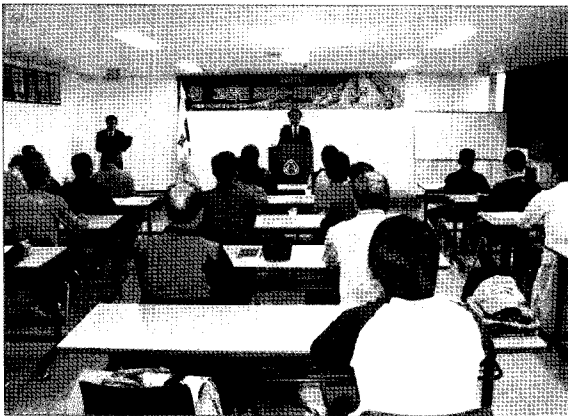
우리협회에서는 농림수산물부와 농업인재개발원의 지원으로 “고품질 조경수 재배과정” 교육을 지난 4월 4일(월)부터 4월 8일(금)까지 실시한 2011년도 제1기 교육에 이어 제2기 교육을 지난 11월 1일(화)부터 11월 5일(토)까지 4박 5일간 일정으로 농업기술진흥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향촌조경 및 동원조경에서 조경수재배에 관심 있는 농업인 및 귀농(촌)예정자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6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이번 교육은 “농업인에게 고품질 조경수 생산을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과 작목전환을 모색하고, 귀농(촌)예정자에게 작목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농촌 생활에 기여”하고자 이론과 실습·견학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조경수 재배 관리 요령, 조경수 생산기술 방향 및 생산·유통, 조경수 개발 및 재배기술, 조경수 병해충 방제, 수목원 운영사례 등의 이론교육과 번식방법, 종자파종, 접목·삼목 실습, 전정(수형 만들기) 실습 등의 실습과 조경수 재배농가의 견학으로 이루어 졌다.

작년까지는 매년 1기씩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올해에는 교육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2기를 실시하였다. ☺





2011년도 도·농 한마음 농촌문화체험 실시

우리협회에서는 농림수산물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후원으로 실시한 2011년도 도농교류협력사업의 일환인 “도농한마음 농촌문화체험”을 완료하였다.

이번 행사는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중요성을 인식시켜 도농교류활성화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9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농업·농촌에 관심이 많은 도시민, 어린이 등 340여명이 5차에 걸쳐 농촌현장에서 체험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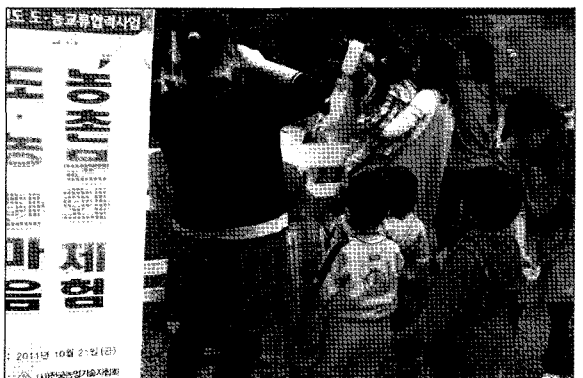
1차로 9월 27일에 고양시지회(지회장 김보연) 회원 등 도시민 86명이 강원도 영월의 고란 포도농장(농장주 이경수 회원)에서 포도 수확체험을 실시하고 포도 등 농산물을 구입하였다.

9월 30일에는 서울시연합회(회장 홍일표) 회원

등 도시민 44명이 강원도 횡성군 자포리 마을에서 더덕 및 감자 캐기 등 농산물 수확체험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일산지역 유치원생과 학부모 84명이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임실치즈 스쿨에서 치즈 만들기, 피자 만들기 및 젓소 우유 짜기 등의 체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0월 21일에도 부천지역 유치원생과 학부모 77명이 함께 역시 파주 임실치즈 스쿨에서 치즈 만들기 등의 체험을 실시하였다.

11월 10일에는 올해 마지막 체험행사로 고양시지역 도시민 47명이 경북 봉화고랭지 약초시험장(강창환 봉화지회장의 안내) 등에서 약초 교육과 함께 체험을 하고 2011년도 도농교류협력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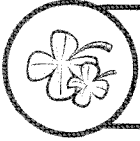
2011년도 제109차 이사회 및 연합회장, 사무처장 연석회의

지난 10월 6일(화) 11:00부터 진흥관 2층 대 강의실에서 24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사무총장 1명이 참석하고 시·도 연합회장 4명과 사무처장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협회 제109차 이사회 및 연합회장, 사무처장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협회의 당면 사항인 제5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개최안을 심의하고 오후 2시부터 여의도에서 거행이 되는 전국농어민결의대회에 참가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회의내용으로는 먼저 일정상 11:00정각에 개회를 하여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하고 바로 심의사항에 들어가 제52회 전국대회 개최에 관한사항을 논의하였다. 제안사항으로는 첫째, 농업기술상의 위상을 감안하여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둘째, 오전 기념식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 셋째, 대회 시 단체 참가자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넷째, 대회 개최상황이 공영방송(TV)에 방영이 되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나왔다. 논의를 한바 농업기술상 포상금 상향조정과 참가자 교통비 지원문제는 대회를 추진하는 집행부에서 조달 예산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전 기념식 시간은 최대한 줄이기로 하였다. 다만, 공영방송(TV)에 방영문제는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니 검토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첫째, 다가오는 11월 11일(금) 제16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 우리협회가 주관하는 국제심포지엄 개최안내가 있고, 둘째, 지역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해 예산편성시 시·도연합회 사무처장에 대한 임금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연합회장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자는 의견 등이 개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국대회 특강은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여 대회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후 2시부터의 전국농어민결의대회 참가를 위해 부득이 12시 30분경 회의를 종료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 20분경 여의도 대회장으로 모두 버스 편으로 이동하여 전국농어민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한편 이날 의사진행은 의장인 윤천영 회장이 단체장들의 전국농어민결의대회 사전모임에 참석을 함으로써 서영욱 부회장이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㉞





2011년도 10월 회장단 간담회 개최

우리협회 10월 회장단 간담회를 지난 10월 5일(수) 저녁 6시 50분경부터 우리협회 사랑방에서 윤천영 회장, 서영욱, 최준혁, 정운순, 윤종옥 부회장이 참석을 하고 사무총장, 조직·관리팀장, 교육·연수팀장이 배석한 가운데 10월 회장단간담회가 열렸다.

회의는 다음날 있을 제109차 이사회 및 연합회장, 사무처장 회의에서 논의 될 사항과 오후 2시부터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전국농어민결의대회 등을 사전 협의하였는데 먼저 자료에 따른 간략한 업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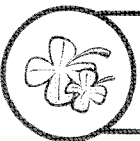
고가 있고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강일동 농장운영관계, 전국대회의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2012년도 영농정보는 사무처가 제안한 대로 다이어리 형태의 영농수첩을 제작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밖에 대회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대회 개최 안에 따라 사무처가 내일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는 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저녁 9시 40분경 회의를 마치고, 회장단은 다음날 회의 참석 등을 위하여 진흥관 3층 숙소에서 하루 밤을 지냈다. ㉞



2011년도 11월 회장단 간담회 개최

우리협회 회장단은 11월 11일 오후 1시경부터 진흥관 3층 사랑방에서 윤천영 회장, 서영욱, 최준혁, 윤종옥 부회장이 참석하고 박종포 사무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진흥관 마당에서 진행되는 2011년도 농특산물 전시·홍보·판매전 등에 대한 논의와 다가오는 11월 23일 개최 될 제52회 전국대회 준비사항에 대한 보고와 이후 추진이 될

여러 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그리고 대회 전날 회장단은 모임을 가져 대회준비사항에 대한 최종 점검과 대회장에서 각자 역할을 협의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한편 11월 12일 10시 농특산물 전시·홍보·판매전 개장식에서 참석한 농업인단체장, 본회 이사, 연합회장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기도 한다. ㉞



본회 회장단 당면사항 협의 개최

지난 11월 22일 오후 4시경 회장단은 본회 사랑방에 모여 다음날 진행이 될 제5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럭키빌 6층 컨벤션홀, 대회장으로 이동하여 준비 중인 사무처 직원 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준비사항을 마지막 점검하였다. 그리고 대회날 회장단의 역할을 정하여 분담하고 특히 기관장 등 내빈, 고문, 지도위

원 등 원로회원들의 안내에 각별한 신경을 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밤 9시경 협회로 돌아와 간단히 저녁식사를 하고 사랑방에서 미진 된 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11 시경부터 진흥관 3층 숙소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윤천영 회장, 서영욱, 최준혁, 정운순, 윤종옥 부회장 등 회장단 모두가 참석을 하였다. ㉞



제16회 농업인의 날 기념 심포지엄

지난 11월 11일(금) 오후 2시 제16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우리협회 주관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수원 농촌진흥청 국제협력지원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한·중·일 3국의 국제 교류로서 '글로벌시대의 도시·농촌공생'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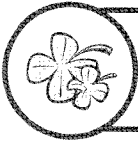
이번 심포지엄에는 윤천영 회장, 농촌진흥청 민승규 청장, 본회 최준혁, 윤종옥, 서영욱 부회장 참석, 일본도시농촌교류협의회 회원 60여명과 중국 사회과학원 10여명, 한국 농촌관광학회와 우리 협회 교육생 및 회원들 약120여명이 참석하였다. 제1 주제 발표로는 전남대학교 강신겸 교수가 '글로벌시대의 도시농촌 공생전략'이라는 주제로, 제2발표

는 일본 교토부립대학교 미야자키 타케시이 교수가 발표를 하였다.

사례발표에는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김종구 과장, 일본·중국·한국의 각국에 사례를 들어 발표를 진행하였고, 쉬는 시간을 가진 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박사가 좌장으로 하여 12명 농촌관광에 대한 전문가와 실제 귀농인과 함께 청중과의 토론회를 가져 각국의 의견을 나누었다.

5시간의 짧은 시간동안의 심포지엄이었지만 정책적으로나 우리나라 농촌관광 현실에 직접연관이 있는 내용들이어서 모두들 만족과 아쉬움을 가지고 토론회를 끝으로 제16회 농업인의 날 기념 심포지엄은 막을 내렸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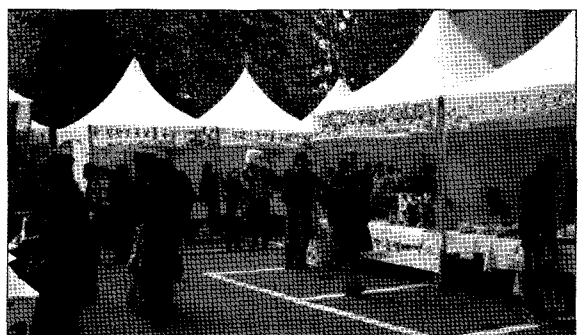




2011년도 지역 대표 농특산물 전시·홍보·판매전 개장 결과

우리협회는 지난 11월 12일(토)부터 13일(일)까지 2일간 본회 진흥관 마당에서 회원 농가가 생산한 지역 대표 농특산물 전시·홍보·판매전을 개장하였다. 그동안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막상 실천을 하지 못하고 미루어졌던 사업으로 준비과정에서 다소의 부족함이나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처음 시행하는 행사치고는 다들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였다. 다만, 여건상 정례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문제나 예산의 확보는 풀어야만 하는 숙제이며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발전시켜야만 할 과제이다. 행사내용으로는 지역에서 46개 생산농가가 참여, 약 200여종의 농특산물이 출품되어 참여 농가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판매가 순조로와 2일간의 총 판매액은 약 1억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물론 현장에서의 직접 판매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많은 주위 아파트 도시소비자가 우리 생산농가와 직접연결

이 되는 기회가 되어 우수한 농특산물을 직접 확인하고 선택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향후 직접거래가 활성화 될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생산농가는 우수한 고객확보가 되고 도시소비자는 적절한 가격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터 잡은 우리협회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 단체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됨은 참 잘 된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경험을 살려 좀 더 세심한 계획과 준비로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2일간 우리행사에 참여, 시식회 등으로 행사를 빛나게 해주신 대한양돈협회와 한국토종닭협회에 감사를 드리고 시식용 우유를 협찬하여 주신 한국낙농우유협회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





시·도연합회 소식

■ 2011년도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충청북도대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충청북도연합회는 지난 11월 18일(금) 오전 10시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위치한 원마루공원에서 250여명의 농기협 회원가 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농촌에 희망을... 도시에 농심을... 생명줄인 먹을거리를 남의 손에 의존한다면 내 백성의 운명이 남의 손에 달려 있지 아니한가.(도산 안창호 선생 말씀 중)”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다.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참가자 등록 접수를 마치고 11시에 개회 및 국민의례, 상허의 3대 창립이념 실천과 협회의 정체성 확립을 기반으로 대회약사보고와 강령 제창, 협회의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FTA 등 농업의 개방화에 따른 협회의 역할정립과 국민농업운동전개, 대회를 통하여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의 홍보강화 50여년의 역사와 업적에 대한 자긍심과 새 시대 농업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심어주는 뜻 깊은 대회의 막이 올랐다.

이어서 본상시상에는 이우신 회원(청원)이 수상하였고, 특별상에는 조영식 회원(청주)과 정중구 회원(음성)이 공동 수상을 하여 총3명이 수상을 하였다. 시상식이 끝난 후 충청북도연합회 이상수 연합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충청북도 이시중 도지사의 축사, 본회 윤천영 회장의 격려사로 이번 충청북도 대회의 개회식을 간단하게 마쳤다.

후에 중식과 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와 국악공연을 보면서 2부 행사 준비와 시작을 알렸다. 2부에서는 각 지회별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하였고, 농산물 행운추첨을 하여 회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고, 짧게나마 5시간의 행사를 마치는 폐회식이 진행이 되었고 충청북도연합회 대회는 막을 내렸다. 끝 인사로 다음 주에 있을 제52회 전국농업기술자 대회의 많은 참석과 전국회원들의 친목, 선도농가로서의

발전은 약속하면서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나누며 다음을 기약했다.

■ 부산·경남연합회 회무위원회

부산·경남연합회는 지난 9월 24일(토) 경남 진주 소재의 길산 농장에서 제2차 회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19시부터 이갑용연합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제2차 회무위원회에서는 도엽합회의 조직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주된 토론과 의견개진을 하였으며, 농사기술 및 정보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밤 10시경에 모두 마무리 되었다.

■ 전라북도연합회 회무위원회

전라북도 연합회는 지난 9월 26일(월) 호남성에서 제2차 회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강경래 연합회장을 비롯하여 9명이 참석하여 전라북도 농기협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농민대학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 지회 재창립을 요구와 관련하여 전북의 진흥청 이전으로 농기협이 앞장서서 교육실습과 여러 사업을 전개하자는 내용으로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가지고 3시간동안의 회의는 12시경에 종료되어 끝맺음을 했다.

■ 강원도연합회 회무위원회



강원도연합회는 지난 10월 17일(월) 오전 11시부터 철원군 친환경농업센터 회의실(지회장 김상우)에서 개최 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완식 연합회장을 비롯하여 각 지회 회장단과 회원들 21명이 참석하고, 본 회의에서는 윤천영 회장이 참석 회원들을 격려하여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2011년 농특산물 전시회 품목 신청과 제5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의 적극적인 참석을 협의 하였다. 이번 회무위원회는 2010년도 결산과 더불어 많은 내용과 개진으로 15시가 돼서야 강원도연합회 회무위원회가 종료되었다.

■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임시총회 및 회무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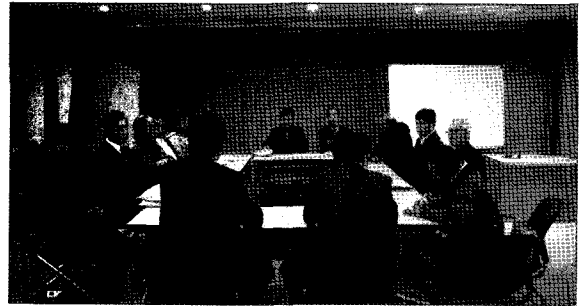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지난 10월 18(화) 오후 4시부터 연합회 사무실에서 본회 윤천영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 및 회무위원회의가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25명이 참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임혁재 연합회장의 병환이 많이 호전됨에 따라서 당분간은 현 체재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도연합회 정선태 사무처장이 제주시지회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도연합회 부회장직을 동시 수행하게 되었음과 활동이 부진한 서귀포연합회를 정기총회까지 책임 하에 활성화시키기로 결의 하였다. 또한 원로회원제를 도입하여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올해 안으로 신규 회원 30여명정도가 가입이 가능하게 하도록 의견을 수렴하였다. 회의를 마친 후 만찬을 통하여 본회 윤천영 회장으로부터 농업현안 및 농기협 상황을 자유토론행식으로 진행하고 밤 늦은 시간이 돼서야 마무리 되고 회의와 토론회를 종료하였다.

■ 대구·경북연합회 회무위원회

대구·경북연합회는 지난 10월 20일(목) 오전 11시부터 경북 문경에 소재한 해금강회집에서 정례회무위원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신동하 연합회장을 비롯하여 12명이 참석하여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에

봉화, 청송, 상주가 참석하기로 하고,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서 장관상 및 회장상, 원로회원 추천자를 받고 대회에 적극 참가 독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회의는 오후 2시경 마무리 되었다.

■ 인천·경기연합회 회무회의



인천·경기연합회는 지난 10월 25일(화) 14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정운순 연합회장을 비롯하여 시·군 지회장 및 박용일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회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하여 시·군별 참여와 여러 품목을 출품하도록 독려하고, 전국대회 참석인원 파악과 함께 연합회 발전방안에 대해 토의 하고점심시간이 넘었을 즈음하여서 마무리가 되었다.

■ 서울시연합회 회무위원회



서울시연합회는 지난 11월 3일(목) 오전 11시에 농업기술진흥관 2층 대강당에서 2011년도 회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홍일표 연합회장 및 본회 윤천영

회장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는 2011년도 지역 대표 농특산물 전시·홍보·판매전 참가와 함께 행사진행에 대한 도움을 논의 하였고,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관련하여 준비사항의 협조와 함께 서울소재에서 열리는 행사 이기에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본회 윤천영 회장을 도와 잘 마무리 되도록 서로간의 의견을 수렴, 특히 처음 열리는 직거래 장터 홍보를 인근 주민들에게 적극 전개하여 성공을 이끌어 내도록 결의하였다.

■ 대전·충남연합회 회무위원회

대전·충남연합회는 지는 11월 4일(금) 회무위원회를 11시20분에 청양읍내 모음식점에서 회무위원 13명 참석, 이상운 회장의 불참한 상태에서 차경환 사무처장의 사회로 지충원 부연합회장이 진행을 맡아 회의를 시작하였다. 이번 회무회의에서 첫째로 금년 대회 때 원로회원 추천과 수상자 추천 건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추천은 차후에 본회 사무처로 통보하기로 하였다. 둘째 안건으로 농산물 전시 및 판매전에 대한 각 지회 참석과 참여 물품에 관한 내용으로 총 3개 지회에서 12~15점 정도로 출품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금년 대회의 참석인원에 대한 안건에는 논산 40명, 서산 40명, 공주 5명, 홍성 5명, 부여 3명, 보령 3명, 천안 3명 등 100~120명쯤 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연합회장의 경질문제 심의에서는 회무위원회 성원이 처음된 바 오늘 연합회장 선출을 하자고 결의 되었다. 그에 따라 임시의장의 진행 하에 차기 연합회장 후보로 지충원 부연합회장과 이기범 지회장을 추천받아 현 지충원 부연합회장이 11명 찬성으로 연합회장으로 선출 되었고 사무처장에는 차경환 사무처장을 재선임하고 폐회를 선언하였다.

■ 전라북도연합회 회무위원회

전라북도연합회는 지난 11월 18일(금) 오전 11시에 호남성에서 제3차 회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강

경래 연합회장을 비롯하여 각 지회에서 참석한 가운데 제1호 안인 제52회 전국농업기술자 대회에 참여 독려의건으로 발의를 시작하였다. 이 안을 중점으로 회의를 진행하였고 많은 참여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과 연합회와 각 지회의 발전에도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3차 회무위원회는 간단하게 진행되어 마무리가 되었다.

■ 광주·전남연합회 회무위원회

광주·전남연합회는 지난 10월 14(목) 오전 11시부터 광주 광천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2011년도 제3차 회무위원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회 및 연합회 사업 및 업무보고와 중국연수단 연수보고, 제52회 전국농업기술자 대회 참석의 건, 수상후보 추천의 건으로 회의가 이루어 졌다. 광주·전남연합회 장창환 연합회장을 중심으로 회무위원회가 시작되어 첫째, 둘째 안건을 모두 마친 후에 제5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참석안은 광주·전남연합회가 고속버스 4대 정도로 함께 움직여서 올라가도록 결정하고 대략 160여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이야기가 모아졌다. 마지막으로 수상후보 추천으로는 박규현, 김도원, 전준옥, 문종선, 김삼식, 송영중, 공성욱, 정홍기, 김홍주 등 9명이 원로유공회원으로 추천되었다. 4가지 안건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짧은 만남을 끝낸 후 마무리를 하였다.

■ 광주·전남연합회 임원회의

광주·전남연합회는 지난 11월 18일(금) 오전 11시에 간단한 임원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는 중앙서영욱 부회장과 광주·전남연합회 장창환 연합회장, 이사 및 지회 회장단이 참석하여 제52회 전국대회 참석의 건에 대하여, 간단한 조율을 위해 회의를 하였다. 임원회의를 통하여 이번 대회참석은 대형버스를 이용하여 160여명 가량이 참석 4대가 동시에 광주에서 출발하기로 합의하고 23일 대회당일 소집하기로 합의하고 임원회의를 마쳤다. ☉



시·군·구지회 소식

■ 충북 진천군지회 정기총회



진천지회(지회장 양재호)는 지난 8월22일 오전부터 진천소재 고향집 식당에서 회장단을 비롯하여 18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회 정기총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본회 행사와 관련한 내용과 충청북도연합회에서 개최할 충북도대회에 관한 내용으로 회의를 전개 하였다. 더운 날씨에 회원들이 나와 의견을 개진하면서 진천군지회의 발전에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짧지만 긴 정기총회를 마무리 하였다.

■ 경기 고양시지회 정기총회 및 회원대회

고양시지회에서는 지난 10월 25일(화) 10:30분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회원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고양시지회 김보연 지회장, 본회 윤천영 회장, 인천·경기연합회 정운순 연합회장, 그리고 인천·경기연합회 각지회장이 참석하였고, 고양시 출신 국회의원 김영선, 손범규, 백성운 의원, 고양시의회 의원과 의장도 참석하는 대대적인 행사였다. 참여 회원 수만 약400여명으로 대강당을 모두 채우고도 모자랐다. 식전행사부터 시작된 총회는 박순금 회원의 연주와 신월숙 회원의 민요가 흥을 더욱 돋아 주었고, 김보연 지회장의 내빈 소개, 이영희 사무국장의 개회선언과 유완식 감사의



우리목표(강령) 제창에 이어 수상을 진행하였다. 각 지회장 상과, 의원상, 본회 회장상을 중심으로 수상을 하였으며, 대표적으로 협회장 표창장에는 문보기 통일회원, 신영옥, 이승엽, 이종록, 최영록, 최영숙, 유완식, 이영석, 최영숙 동심회원 등 많은 분들이 수상하였고 박수로 축하를 대신하였다.

다음으로는 김보연 지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본회 윤천영 회장, 인천·경기연합회 정운순 연합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고양시 정기총회 및 회원대회의 막을 내렸다.

■ 전남 담양군지회 총회

담양군지회는 지난 9월 26일 11시부터 담양지회 총회를 개최 하였다. 오형남 지회장과 15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지회 조직점검 및 조직 확대 방안에 대한 내용을 주된 안건으로 삼고, 장창환 연합회장이 참석하여 중앙회 및 연합회 주요 사업을 보고와 함께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서 주된 안건으로 진행된 지회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고 내용을 수렴하여 그에 따르는 지회 차원에서의 노력과 회원간의 단합을 강조하고 오후 2시경 아쉬운 마음으로 해산을 하였다.

■ 충북 옥천군지회 정기총회

옥천군지회는 지난 10월 15일 11시부터 대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양태식 지회장을 비롯하여 충청북도연합회 신경철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본회 이사회 내용을 설명 하고, 신경철 사무처장은 도 대회에 관한 진행사항과 농산물 직거래 행사에 대해 토의를 하였다. 도 대회에 관하여서는 버스로 옥천군에서 참석하기로 하고 도 대회의 농산물 직거래 행사는 직접 회원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참석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지회별 활성화 방안과 본회의 행사에도 적극 참여 독려하기로 하고 오후 2시경 옥천군 지회 총회를 마쳤다.

■ 강원 고성군지회 정기모임

고성군지회는 지난 10월 20일 고성군야생화 소리 식물원에서 저녁 6시 30분부터 정기모임을 개최 하였다. 이번 정기모임에는 마수일 지회장을 포함 15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농특산물 전시·홍보·판매전 행사에 참여할 회원과 물품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 참여토록 독려하였다. 다음 안건으로는 전국농업기술자대회(과천) 참석에 대한 것과 수상 관련하여 추천과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회의 하였다. 기타 토의와 회원들의 친목의 시간을 가진 후 저녁 9시에 정기모임을 마쳤다.

■ 경남 진주시지회 임시총회

진주시지회는 지난 11월 12일 진주시 소재 함양식당에서 저녁 6시에 성원보고 및 강령제창 후 김이갑 지회장 인사와 이갑용 연합회장의 격려사로서 본회의 제6차 임시총회를 시작하였다. 이번 임시총회 안건은 전회 회의록 낭독 및 금전출납을 사무국장이 보고하고, 제5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참가 결과를 보고 하였다. 그 후 2가지 협의 내용에 대해서 결의 하였다. 첫째로는 52회 전국대회 참석에 대하여서는 11월 23일 대형 버스로 함께 참석하도록 하였다. 둘째로 김귀영(여), 김진길 신입회원의 입회 소개 및 인사로서 환영과 열심히 할 것을 다짐 당부하는 말과 함께 회원 간의 친목도모 후 제6차 임시총회는 밤 8시에 종료 해산하였다.

■ 인천 용진군지회 정기총회

용진군지회는 지난 11월 22일 오후5시 용진군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본회 홍순일 이사와 이재철 지회장을 비롯하여 15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회 활성화 및 회원가입에 대한 안건을 시작으로 2012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내일 있을 전국대회 참석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고 정기총회를 마쳤다.

■ 제4회 정읍 동근마 수확체험 대축제



2011년 11월 5일(토) 11시에 정읍농원(정읍사무국 장 문응주) 동근마농장에서 소비자 500여명과 전국

영농모니터위원들을 모시고 수확체험행사와 정읍시장을 비롯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준 가운데 행사를 가졌습니다.

종지 않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과 서울소비자들까지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정읍등근마를 직접 캐는 체험을 해보고 구매하는 행사였습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여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고 이 행사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정읍 등근마란? 정읍에서 재배에 성공한 정읍이

주산지인 등근마 종류로서 일반마에 비해 무신, 디오신, 섬유질이 2.5~3.5배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봄에 심어 가을에 수확하므로 생산성이 월등하고, 고소득을 내며 다른 마에 비해 월등히 품질이 좋다고 하겠다. ㉞

■ 작고하신 회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 ▶ 김 종 록(충남 서산)
- ▶ 서 천 옥(전남 진도)
- ▶ 이 경 선(충북 옥천)

기타소식

■ 한·미 FTA국회비준반대 농수축산비상대책위 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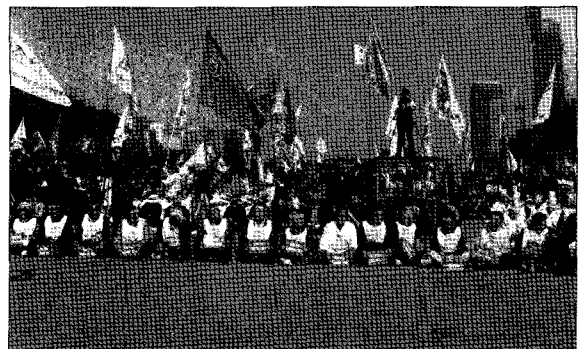
지난 9월 8일 전국농민대회 선포식에 이어 29일부터 한·미 FTA국회비준반대 농수축산비상대책위가 농성에 돌입하였다. 본회 윤천영 회장이 참석하여 기자회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 한·미 FTA국회비준저지 농민단체 농성

농수축산비상대책위를 수시 방문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회장단회의를 하는 모습이다.(여의도 국민은행 앞)



■ 한·미 FTA국회비준저지 전국농민결의대회



지난 10월 6일 여의도 공원에서 한·미 FTA국회 비준저지 전국농민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회관계자 추산 1만여명이 참석하여 우리의 굳은 의지를 전달 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 우리 협회에서도 회장단을 포함 100여명이 참석하여 FTA반대와 농어민의 피해보전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농수축산연합회와 농민연대 대표자 간담회



지난 10월 17일 농업기술진흥관 대강의실에서 열린 농수축산연합회 대표자와 농민연대 대표자들의 간담회이다. 이 회의에서 한미 FTA국회비준반대에 관련하여 대표자들이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앞으로의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한국4-H중앙회 경진대회

지난 11월1일 농촌진흥청 운동장에서 열린 한국 4-H중앙회 경진대회에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윤천영 회장이 참석하여 후배 4-H중앙연합회 회원들에게 격려와 축하를 해주고 앞으로의 농업을 짊어지고 가야할 후계농업인들에게 우리 농기협에 가입하여 함께 선도농가의 길을 가고, 서로의 농업지식과 의견을 나누자고 하였다.

■ 한국4-H본부 창립57주년 기념식

11월 8일 한국4-H본부(서울 강동구)에서 열린 창립57주년 기념식 및 시상식에 윤천영 회장이 참석, 대학 때 같이하던 4-H회원들을 만나 앞으로의 농

업과 미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창립기념일을 축하하였다.

■ 우수품종상 심사

지난 11월10일 안양에 소재한 국립종자원에서 열린 2011년도 우수품종상 심사위원으로 본회 윤천영 회장이 참석하였다. 심사위원장인 전 농촌진흥청장 김강권 박사와 함께 금년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 제2회 한국여성농업인대상 시상식

지난 11월 21일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장정옥)에서 주최한 제2회 한국여성농업인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여성농업인들의 뒷받침부터 이제는 선도적으로 앞장서 경영을 하는 여성 농업인에게 축하와 격려를 해주었다.

■ 농우바이오는 산업포장과 일천만 달러 수출탑 수상

농우바이오 정용동 전무이사는 1987년 종자업계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24년간 종자인으로서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고민하며 고품질 우량 채소종자의 보급을 위해 노력한 인물로 다음과 같은 공적이 높이 평가되어 이번 2011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종자기업 농우바이오(대표이사 김용희)가 올해 채소종자 수출 1,360만 달러를 달성해 11월 30일 제48회 무역의 날을 맞아 일천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였다. 이번 수출탑 수상은 지난 1997년 외국계 기업의 국내 종자 회사를 대상으로 한 M&A 이후 14년 만에 순수 국내자본 기업이 처음 이룬 성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겠다. ☺